

문서번호 : 세경연 제21-003호

배포일시 : 2021. 02. 09.

보도시간 : 배포 후 즉시

제 목 : 세계경제연구원(IGE) 웨비나 개최 주요 내용

(2021년 2월 9일, 서울)-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이 오늘 ‘국제금융시장 현황 및 핵심 이슈와 블랙록 ESG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연사로 참여한 세계 최대 투자회사 블랙록(BlackRock)의 매니징 디렉터이자 전 파이낸셜타임즈 수석 컬럼니스트 헨리 센더(Henny Sender) 박사는 글로벌 화두인 증시와 실물경제의 괴리에 대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한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 판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저금리,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가치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2%를 넘어서는 등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시행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양책보다는 인프라 투자와 같이 재정지출증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가 1.9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전세계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부양책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블랙록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겠지만 실질 금리는 그리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경쟁관계가 이어지겠지만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좀 더 예측 가능할 것이다”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바이오 부문에서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이는 전세계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앤티그룹의 IPO 중단 사태를 비롯해 중국 금융당국이 거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앤티그룹 사태가 놀라운 것이 아니고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기술기업 비규제로 인해 중국내 전통적 금융부문이 약화된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들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국영은행들에 좀 더 힘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며, 앤티그룹 사태는 중국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간 대립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ESG와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ESG를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 사태가 ESG의 모멘텀을 크게 키웠으나,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여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ESG의 적극 도입,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